특집 마당

일본 동아시아 패권정책을 경계한다

일본문화 침투에 의한 고유문화의 소멸위기

무비판적 저질문화 수용 탈피해야

청소년의 73% 일본 번역만화 즐겨 읽어

얼마전 주일대사의 '일본대중문화 수용론' 발언은 일본대중문화유입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활발하게 불러 일으켰다.

주일대사의 발언은 일본문화가 이미 깊고 폭넓게 우리속에 들어와 있는데 차라리 양성화시켜 저질문화의 음성적인 침투를 막고 양질의 대중문화교류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론을 깔고 있는 것 같다.

문화관련 전문가들 중에는 일본대중문화수입을 개방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느냐가 중요한 것이며 사전심의를 통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현재로서는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개방의 전제조건으로 문화적 주체성을 세우는 일이 먼저라는 주장도 있다.

문화교류—외래문화수용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 일본문화에 대해 문을 활짝 여는 것이 가치혼란을 초래할지 아니면 문화적 토편성 확보에 도움이 될지를 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공식적으로는 일본문화를 거부해 왔고, 역사적으로 굳어진 국민의 일본 것에 대한 거부감정은 누그러지지 않았지만 우리 현실은 이미 청소년들이 일본문화를 즐겨 보고 있고 일본만화영화가 텔레비젼을 통해 어린이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으며 일본 컴퓨터 오락프로그램을 손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청소년 주변에 널려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 관련 행정부서들은 방관하고 있었지 않았냐는 지적과 함께 일본문화수용에 대한 제반 준비를 얼마만큼 하고 있었냐는 물음을 던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문화수용에서 감수성이 예민하고 분별력이 미숙할 수 있는 청소년의 경우 유해환경이나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저질문화접촉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여러 매체중에서 인쇄매체 만화의 접촉도를 본회(서울YWCA)가 실시한 조사('93. 5)에 의해 살펴보면 조사자중 일본번역만화를 계속 보고 있는 학생이 73%였고 그중 일본번역만화인지 알고 읽는 경우가 61%였다. 만화의 구입경로는 동네서점이 32%, 문구점이 17%로 아이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가까운 서점, 문구점이 주요한 구입처였다. 학생들이 많이 보거나 기억에 남는 것으로는 드래곤 볼, 슬램덩크, 슈퍼 볼, 시티헌터 순이고 기억에 남는 주요한 이유가 재미있기때문(57%)이라고 답하였다. 지금까지 드래곤볼은 10만부이상, 슬램덩크는 25만부이상이 팔렸다고 한다.

국민학생이나 중·고생들이 이미 일본 만화에 얼마나 빠들여져 있는가는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금세 알 수 있을 정도이다.

현재 나와있는 일본만화의 내용상 큰 문제로 폭력성과 선정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아이들은 일단 자극적인 내용에 보다 더한 자극적인 맛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더우기 일본 만화가 소재의 다양성이나 극적 전개능력, 표현의 강도등에서 우리만화수준보다 한 수 위임을 만화평론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본만화의 범람에 대해 당국의 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수요가 해마다 폭발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 만화가 협회 보고에 의하면 1992년 한해동안 무단복제된 일본만화가 34개 출판사 3백여종에 4백만부에 달한다고 한다.

간행물 윤리위원회는 만화심의현황에서 선정적이고 폭력장면묘사가 심화되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화의 문제점은 이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성인전용 유통구조가 없어서 청소년들에게 성인용 음란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점과, 불법간행물로 나온 일본번역만화에 대한 단속이 미약할 뿐 아니라 위반업자에 대한 처벌금액도 없다는 점이다.

현재의 국제질서 속에서 일본화, 문화를 언제까지고 막을 수는 없겠지만 사고체계가 아직 제대로 서지 않은 청소년을 위한 보호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 당국은 미흡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만화산업육성을 위한 대책을 지금이라도 세워야만 한다.

대중문화에서 다른 어떤 매체보다 만화가 대중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고 영향력이 큰 것임을 인식하고 국가적으로 만화산업을 키워온 일본이 전 세계의 만화시장을 잠식하고 있음을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아직은 나쁜내용의 일본만화가 주이기 때문에 일본만화거부의 근거가 있다 하겠지만 92년의 출판시장 개방후 우수한 일본만화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만화의 설 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만화를 베끼는 만화가들이나 일본만화를 불법출판하고 유통시키는 출판업자들은 지금 상황의 횡재음을 정반은 져야 할 것이다.

요즘 청소년 문화환경의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가 새 미디어 환경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영상매체나 통신매체의 급속한 기술발달에서 오는 문화기능을 어른보다 청소년이 더 빨리 접하고 있지 않나 싶다. 매체 환경은 혁명적 차원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표현한다.

기존의 영상매체에 CATV와 위성방송이 등장하고 있고 VOD가 곧 시작된다고 한다. 컴퓨터 게임및 영상에도 CD-ROM, ROM-PACK, FD등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매체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주가 되어 이러한 여러매체에 대한 문제점이나 유해성을 분석하는 모니터 활동을 해오고 있지만 수용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역기능 문제는 도외시된 채 일방통행적인 기술의 발달은 적지않은 당혹감을 안겨주고 있다. 매체발달이 주는 정보의 다양함과 신속함, 편리함등 유일성에도 놀라지만 이러한 새 매체가 형성할 문화가 우리 청소년에게 불건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 더욱 놀랄 수 밖에 없다.

컴퓨터가 제공하는 화면이 폭력적이거나 음란한 것일 경우 시각을 통한 간접경험을 현실에서 실현하고 싶은 충동이 다른 어떤 매체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매체기능이 주는 해악도 문제지만 또 다른 우리의 관심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취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사회 여건에서 불건전한 외국 프로그램이 청소년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몇개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엇이 나오는 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 비디오가 일으켰던 문제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청소년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새 매체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당국과 학교, 가정, 사회전체가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무비판적으로 수동적인 자세로 매스미디어를 받아들이는 소극성에서 벗어나 청소년 스스로 선별하고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교 교과과정에 미디어 교육, 수용자 교육, 문화수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 교사들 역시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부모들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과외를 시켜주는 것만이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님을 각성하고 이제는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를 건전하게 지켜주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김 인 자
(YWCA 청소년부 부장)

잃어버린 역사

아.! 고구려전등 역사기획물 통해본 우리것 찾기

1

이데(IDEA)가 없는 시대는 불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대는 이데마저도 소비되고 있는 시대이다.

이 상반되는 진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황막한 곳이며 그리므로 또한, 얼마나 비극적일 수 있는지를 반영해주고 있다.

2

1993년 1월,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난 직후 우리를 찾아온 것은 지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맞고 있는 그런 환희가 아니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쏠쏠함이었고, 허탈함이었다. 왜였을까.

누구나 그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제 두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길고 지루했던 군사정권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었다. 변화가 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 중 한명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축제는 없었다. 요란스러운 물갈이가 잠시 있었고, 청와대가 두터운 벽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인상만 전해졌을 뿐, 우리는 또 원치 않던 관객이 되어버렸다. 왜일까?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렇지 않았을까? 글쎄 과연 그럴까?

그 선거를 밝이하기까지 우리사회가 어떤 갈등과 혼돈속에서 세월을 낭비해왔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던져보았을 의문일 것이다. 무엇이 달라져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정신속에 어떤 새로움이 들어서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었던가? 착각이었던가?

역사란 으레 그런 것인가?

물론 남아프리카도 축제와 흥분의 시기가 지나면 곧 냉엄한 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승리와 자유의 향기를 맡았다. 과거의 그들이 아닌 것이다.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그들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금과는 다른 사회를 건설해 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향기를 맡았던가?

어떤 꿈을 꾸었던가?

3

정치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일을 별로 의미가 없다.

어떠한 정치적 원인도 이 정신사적 공허를 메워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 세대의 경험으로만 비추어본다면, 그래도 한때 목숨을 바칠 것밖이 있다고 믿었었다.

인류의 진보에 대한 확신과 당대적 상황에 대한 열정적인 인식이 변혁에 대한 신념을 주었고 행동하게 했었다. 혹자는 맑스레닌이즘의 사생아라고도 불렀고, 주체사상의 북두각시놀음이라고도 평가했지만, 우리 세대는 나름대로 한반도의 좌절된 진보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이라 믿었었다.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런한 신념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생을 진지하고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것으로 살아가도록 해준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고통스럽게도 그 것밖은 환영이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 이데는이미 우리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해체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는 아픔을 사무치도록 아프게 감당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둘 잠시 떠나온 식탁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무도 이제 꿈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투자와 수익률에 관해 얘기하고, 공모주청약에 대해 얘기하고, 새로 나온 자동차에 관해 얘기한다. 우리가 학습했던 많은 전인류들의 가설과 꿈들은 이제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다.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실이 그럴지도 모른다. 지하철도 확충해야하고, 환경문제도 해결해야하고, UR도 곧지 아프다. 교통문제는 해결책이 안보이고, 정보화율도 끌어올려야 한다. 이런 현실적인 과제들 앞에서 그런 꿈들은 경제적인 효용성에 따라 재구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논쟁에 사람들이 이끌렸던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데마저도 소비되고 있다는 진술은 그래서이다. 불론 잠 살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밥이 하늘인 백성들이었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시간이 멈춘다. 시간이 멈춘 역사는 사라졌었다. 로마처럼.

우리 시대에 남아 있는 꿈은 무엇일까?

통일인가?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통일은 이미 현실이다. 과정과 절차와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쉽지 않은 현실일 뿐이다. 물론 이루어내야할 역사의 숙제지만 우리가 어린시절에 그렸던 것처럼 모든 아픔다 음이 다 들어있을 그런 꿈이 아니라, 엄숙하게 다루어야할 현실적인 과제라는 것이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 이후의 미래를 준비할만한 비전을 우리는 갖고 있는가? 아니 그보다,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힘은 무엇일까? 그런 걸 갖고 있기나 한 것인가? 짧지 않은 세월을, 그것도 전쟁까지 겪은 적대적인 체제로 대립하면서 나뉘어 있던 민족을 통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를 보고 있으므로.

그것은 경제도 정치도 군사도 문화도 아닌 전혀 다른 역사적 경험일 것이다. 총체적이고 전일적인 그런 일, 그러나 세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일.

(19면에 계속)

◇일본 다카미쓰 고분의 여인상

농산리에서 발굴된 '금동용봉봉래산향로'는 일본의 고대국가 성립이 한반도인들의 이주에 의한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

HALLA 자역환경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 MANDO

Mechatronics란?
첨단 기계에 전자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만도는 안전과 편리함을 더해가 위해 자동차 부품의 메카트로닉스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의 메카트로닉스—
만도가 실현합니다

안전과 편리를 더해주는 첨단기술—
고객을 중시하는 만도의 기술정신입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회사의 명성을 쌓아온 만도기계—
이제 만도는 기계기술에 전자기술을 결합시켜
메카트로닉스화로 안전과 편리를 더해주는
첨단 자동차부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만도의 첨단기술은 메카트로닉스의 결정체인
ABS와 ECS(전자제어 서스펜션), Air Bag,
TCS(출발시의 미끄럼 방지장치) 등의
전자화된 자동차부품뿐 아니라,
공작기계와 로보트 등의 산업기계 분야,
산업용냉동기, 에어콘, 온풍기 등의 공조기기 분야에서도
그 기술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만도기계(주)